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정외과 이건수동문 2억원 기증

△이준열(공대섬유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권영하(〃) : 1백50만원 △김갑진(〃) : 1백50만원 △장승호(공대기계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류운영(공대 섬유공학과 교수) : 2백만원 △허 유(〃) : 1백50만원 △최종윤(선일상선상무이사, 66년 졸리학과 졸) : 5백만원 △손낙원(한의과대학 교수) : 1백20만원 △최두고(동성학원 이사장,영문 1회졸) : 50만원 △이준식(기획관리식 차장) : 2백만원 △이원종(기획주임) : 1백50만원 △유종석(대학원 과장) : 1백20만원 △안덕균(한의과대학 교수) : 1백만원 △김호철(〃) : 1백만원 △강대기(한의과대학 교수) : 1백만원 △김명재(의과대학 교수) : 4백만원 △유진화(〃) : 2백만원 △이종택(고황재단 직원) : 1백20만원 △황선(음대 기악과 교수) : 1천만원 △신유항(문리대 생물학과 교수) : 1백50만원 △김원규(자연과학대 우주과학과 교수) : 2백만원 △유춘기(탐라교육원 총무부장,행정대학원졸) : 10만원 △나호열(총무과 서무주임) : 1백50만원 △장성구(의대 비뇨기과 교수) : 2백만원 △남순건(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 1백20만원 △한국은행재직 동문일동 : 20만원 △노회상(미교과 2년 노명철의 부) : 10만원 △이기영 : 20만원 △맹금용 : 20만원 △선우섭(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교수) : 2백만원 △전병관(체육과학대학 조교수) : 1백50만원 △한용근(문리과대학 사학과교수) : 5백만원 △김상국(체육과학대학 교수) : 3백만원 △이경섭(한의과대학 교수,시내한방병원) : 3백만원 △김명현(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홍정표(치과대학 부교수) : 1백20만원 △박영국(치과대학 조교수) : 2백만원 △최기운(치과대학 부교수) : 1백20만원 △김여갑(치과대학 교수) : 3백만원 △박인옥(의료원 총무과) : 50만원 △박옥이(〃) : 50만원 △심은영(〃) : 50만원 △최혜진(〃) : 50만원 △김귀향(〃) : 50만원 △김귀향(〃) : 50만원 △김귀향(〃) : 50만원 △허미영(〃) : 50만원 △고혜란(〃) : 50만원 △박선화(〃) : 50만원 △김은주(〃) : 50만원 △방효수(〃) : 50만원 △김홍규(〃) : 50만원 △임홍재(〃) : 50만원 △정길환(〃) : 50만원 △유승옥(〃) : 50만원 △오병곤(〃) : 50만원 △정보영(〃) : 50만원 △김수식(〃) : 50만원 △김명규(〃) : 50만원 △김명규(〃) : 50만원 △김명재(〃) : 50만원 △김홍규(〃) : 50만원 △김영숙B(〃) : 10만원 △김춘선(〃) : 10만원 △이장비(〃) : 10만원 △나명희(〃) : 10만원 △송영자(〃) : 10만원 △김숙희(〃) : 10만원 △박외숙(〃) : 10만원 △김정님(〃) : 10만원 △장명자(〃) : 10만원 △이홍자(〃) : 10만원 △이은자(〃) : 10만원 △이명순(〃) : 10만원 △서순석(〃) : 10만원 △황복순(〃) : 10만원 △김인희(〃) : 10만원 △박민옥(〃) : 10만원 △김주자(〃) : 10만원 △박인자(〃) : 10만원 △홍랑복(〃) : 10만원 △김용애(〃) : 10만원 △최순자(〃) : 10만원 △김태숙(〃) : 10만원 △박찬조(〃) : 10만원 △박장남(〃) : 10만원 △홍정순(의료원 영양과) : 10만원 △정영옥(〃) : 10만원 △이미경(〃) : 10만원 △한윤희(〃) : 10만원 △박부영(〃) : 10만원 △최순자(〃) : 10만원 △원든자(〃) : 10만원 △전윤식(〃) : 10만원 △황연희(〃) : 10만원 △남창순(〃) : 10만원 △유원희(〃) : 10만원 △원종순(〃) : 10만원 △유선옥(〃) : 10만원 △김앙순(〃) : 10만원 △이한숙(〃) : 10만원 △이순희(〃) : 10만원 △김혜숙(〃) : 10만원 △오정옥(〃) : 10만원 △김영숙(〃) : 10만원 △지태환(〃) : 10만원 △임순택(〃) : 10만원 △노혜숙(〃) : 10만원 △유영희(〃) : 10만원 △주귀례(〃) : 10만원 △김미옥(〃) : 10만원 △김명자(〃) : 10만원 △이교선(〃) : 10만원 △한운상(〃) : 10만원 △김정화(〃) : 10만원 △김영숙B(〃) : 10만원 △김춘선(〃) : 10만원 △이장비(〃) : 10만원 △나명희(〃) : 10만원 △송영자(〃) : 10만원 △김숙희(〃) : 10만원 △박외숙(〃) : 10만원 △김정님(〃) : 10만원 △장명자(〃) : 10만원 △이홍자(〃) : 10만원 △이은자(〃) : 10만원 △이명순(〃) : 10만원 △서순석(〃) : 10만원 △황복순(〃) : 10만원 △김인희(〃) : 10만원 △박민옥(〃) : 10만원 △김주자(〃) : 10만원 △박인자(〃) : 10만원 △홍랑복(〃) : 10만원 △정종화(〃) : 10만원 △김순애(〃) : 10만원 △김종희(〃) : 10만원 △이정희(〃) : 10만원 △김정자B(〃) : 10만원 △변정도(〃) : 10만원 △박명순(〃) : 10만원 △지숙자(〃) : 10만원 △김성순(〃) : 10만원 △송옥화(〃) : 10만원 △이금순(〃) : 10만원 △정한모(〃) : 10만원 △배향미(〃) : 10만원 △정옥주(〃) : 10만원 △조승선(〃) : 10만원 △최명희(〃) : 10만원 △이주분(〃) : 10만원 △조기자(〃) : 10만원 △조한순(〃) : 10만원 △송영선(〃) : 10만원 △강금화(〃) : 10만원 △오경선(〃) : 10만원 △이금선(〃) : 10만원 △이순화(〃) : 10만원 △김금자(〃) : 10만원 △김남순(〃) : 10만원 △맹복례(〃) : 10만원 △최종란(〃) : 10만원 △김래영(〃) : 10만원 △장장례(〃) : 10만원 △김형식(〃) : 10만원 △오일순(〃) : 10만원 △지분화(〃) : 10만원 △이문자(〃) : 10만원 △박발연(〃) : 10만원 △김정순(〃) : 10만원 △표재인(〃) : 10만원

△한선화(의료원 영양과) : 10만원 △강안순(〃) : 10만원 △신경화(〃) : 10만원 △강옥심(〃) : 10만원 △홍연희(〃) : 10만원 △성기영(〃) : 10만원 △이화숙(〃) : 10만원 △정순덕(〃) : 10만원 △김성자(〃) : 10만원 △문명자(〃) : 10만원 △김은주(〃) : 10만원 △김용태(〃) : 10만원 △방옥란(〃) : 10만원 △김정자(〃) : 10만원 △조옥자(〃) : 10만원 △윤영희(〃) : 10만원 △정예택(의료원 원무과) : 1백만원 △김봉기(〃) : 50만원 △이일우(〃) : 50만원 △김상인(〃) : 50만원 △홍남두(의료원 한방약제부) : 3백만원 △김남재(〃) : 1백50만원 △김종우(〃) : 3백만원 △신종휘(〃) : 50만원 △주수만(〃) : 1백만원 △신현준(〃) : 50만원 △송보원(〃) : 2백만원 △김재복(〃) : 1백만원 △윤휘현(〃) : 1백만원 △함종관(〃) : 1백만원 △김태수(〃) : 1백만원 △박노정(〃) : 10만원 △유황금(〃) : 50만원 △김홍식(〃) : 50만원 △김이국(〃) : 50만원 △박성희(〃) : 50만원 △박금석(〃) : 50만원 △김상복(〃) : 50만원 △김재경(〃) : 1백만원 △김영기(〃) : 50만원 △정보연(〃) : 50만원 △진문식(〃) : 50만원 △남순현(〃) : 50만원 △김주성(〃) : 1백만원 △전경숙(의료원 간호부) : 1백50만원 △김예경(〃) : 1백만원 △홍혜성(〃) : 1백만원 △손명숙(〃) : 1백만원 △윤석록(의료원 치료방사선과) : 2백만원 △김명호(〃) : 1백만원 △신동오(〃) : 1백만원 △홍무창(한의대 교수) : 1백2십만원 △조유정(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3백만원 △전홍신(공과대학 기계과 교수) : 1백8십만원 △노시학(문리대 지리학과 조교수) : 1백만원 △김형석(의대 의학과 교수) : 3백만원 △박신애(의대 간호학과 교수) : 2백만원 △박경일(사대 영교과 교수) : 2백만원 △송은규(전 건설부장) : 1천만원 △한 동(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 2백만원 △김해동(문리대 화학과 조교수) : 1백만원 △박승민(〃) : 1백만원 △이건수(동문, 정외12회) : 2억만원

송은규
〈전 건설부장〉

발전기금 1천만원 기증

"모교발전 밑거름 될 터"

인터뷰

본교에 34년간 재직하다 지난 2월24일 정년 퇴임한 송은규 전 건설부장이 우리 학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였다. 1954년에 경희대 법대에 입학하여 우리 학교와 첫 인연을 맺은 후 6회 졸업생으로서 학교 행정직에 봉직하며 모교의 초창기부터 학교의 발전을 지켜보았던 송동문의 학교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것이었다.

"34년전 학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에는 황무지 뿐이었고 교사 또한 가건물들이었습니다. 지금 웅장하고 철 따라 아름다운 캠퍼스와 국민학교와 유치원까지 갖추어진 건물들을 보면서 새삼 학교를 가꾸는데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하는 송동문의 말에서 우리학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대학 설립 초창기에는 학생들또한 학교의 일에 적극 동참했다고 회상하는 송동문은 40년 가까이 뒤로 돌 후배들에게 "국적은 이민을 가면 바뀌는 것이지만 모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교를 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위한 모든 구성원들의 발전책 건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전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대강당 공사의 시작부터 한 상태까지의 공정에 모두 참여했다는 송동문은 "대강당의 완공을 보고 정년을 맞고 싶었지만 이제는 남은 분들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겸손해하며 대강당의 완공을 바라는 작은 소망을 말하기도 한다.

술하에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아들을 둔 송 동문은 앞으로 고덕의 제2의료원 1차 공사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박경화 記者〉

朔風

언어의 거울속에 비춰진 모습들

상식의 수준에서 이해하더라도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다. 비록 왼손이 오른손으로 바뀌는 형상을 보일지라도 언어라는 사회의 거울은, 그 나름대로 사회를 반영한다.

그 예증은 허다하게 많다. 가령 점심시간에 시내 거리를 활보할때 보이는 '원조' 명사를 수식어로 쓰는 음식점. 그 음식점도 따지고 보면 '원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조론을 봐도 그렇다. 무단횡보하면 5천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한다. 이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곧 우리나라국민 중 대다수가 무단횡단에 이력이 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있다. 국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도 않았다'는 '3無정신'(?)을 역으로 보면 '당연히' 행해졌던 일에 대한 '오리발'이었음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다. 깨끗한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정치개혁법안이 지난 4일 밤 국회를 통과, 새로운 선거문화가 마련될 것이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나 기타 선거는 깨끗하지 못했다는 뜻일까?

시대의 반항아들에게 가끔 하는 말, "하지 말라는 일은 꼭 한다"는 본장의 성립과정도 불만하다. 따지고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벌써 그 일을 한번쯤은 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래서 역설적이다.

최근 운전기사들이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세우며' 투쟁중이다. 곧 그들의 생계를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할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어느정도 그들의 입장을 살핀다면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고의 교통사고율 그리고 하루 30여명이 도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게만 위험이 비켜가란 법은 없다. 운전기사들을 '전사'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는 운전기사의 준말이다. 신문사 국제부기자는 전쟁터에서 연일 몇십명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씨제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도로라는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다. 무서운줄 모른다. 한달이면 9백명, 1년이면 1만8백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운전기사를 '전사'라고 한다.

전사라는 말에 내포된 두번째 의미는 그 싱격에 있는 듯하다. 일종의 비아냥까가 섞여 있을텐데, 다른말로 표현하자면 '무법자'라고나 할까. 전쟁터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전사처럼 도로라는 곳을 전쟁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일반인들의 우려들 엿 볼 수 있는 많이다.

그러나, 대다수 운전기사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불행하게도 전사라는 말의 두번째 의미는 어느정도 사실인 듯하다.

최근의 투쟁방식을 봐도, 그들의 말을 삼짝 들춰봐도 그 사실은 알 수 있다. '준법투쟁'이라니.

투쟁의 방법이야 따따싸따 말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준법투쟁의 이면을 보면, "나는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았소. 나는 이제부터 도로교통법을 충실히 지켜 돈을 벌겠소"라는 양심선언으로 들린다.

당연히 지켜야할 법을 이제와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니 가상하다. 하지만 그 양심선언의 마지막 말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소"라고 바뀐다면, 그렇게 의식이 전환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옛어른 말씀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다. 새겨볼직하다.

〈시우〉

알림터

교수동정

이용걸 교수 방미

【서울캠퍼스】▲이용걸(의과대학·의학)교수=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김형찬(치대·치의학)교수=2월7일부터 1년동안 연구와 연구결과 자료분석을 위해 미국방문.

【수원캠퍼스】▲박양병(공과대·산업공학과)교수=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술논문 발표차 일본방문.

동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조경성(영문·2) ▲정상훈(지리·2) ▲김현수(수학) ▲박인숙(수학·2) ▲양정일(법학·1) ▲최성진(법학·2) ▲최성봉(영교) ▲김보영(영교·3) ▲김소형(영교·3) ▲전미영(의상·3) ▲전경철(의예·2) ▲소정은(의본·1) ▲김동섭(한의본·2) ▲김용태(한의본·1) ▲강희(한의본·2) ▲송주경(약학·4) ▲김미영(약학·3) ▲양종관(삼의원409) ▲서재희(삼의원419)

【수원캠퍼스】▲이희연(불문·4) ▲곽삼현(중문·4) ▲강희내(일문) ▲박현정(러시아어·2) ▲장영주(러시아어·3) ▲김수경(행정·4) ▲문소영(행정·2) ▲이태훈(경영·4) ▲배재철(무역·2) ▲장세현(무역·4) ▲홍문기(무역·2) ▲권세동(회계·3) ▲김성규(회계) ▲이동호(회계) ▲이지영(회계·3) ▲문은영(사회·4) ▲박재훈(사회) ▲추정식(사회) ▲이성희(국제관계·2) ▲박세동(수학·2) ▲서장원(수학·2) ▲이정완(화학·3) ▲이종현(화학) ▲한태동(화학·3) ▲김정희(환경·4) ▲류재안(환경·3) ▲황기원(유전·2) ▲김소정(우주·3) ▲노지환(우주·3) ▲김서원(우주·4) ▲김효준(기계·4) ▲조용기(기계·4) ▲문희남(기계·2) ▲고봉식(섬유·2) ▲이상엽(섬유·2) ▲박성규(전자·3) ▲김봉수(건축·4) ▲민형기(건축·1) ▲이승한(건축·3) ▲강지만(토목·4) ▲장병수(토목·2) ▲김기성(토목·2) ▲김보훈(토목·3) ▲유석준(토목) ▲이건(토목·4) ▲김대형(산공·4) ▲한부석(산공·2) ▲송은석(원자력·3) ▲유성홍(원자력) ▲오원준(원자력) ▲강영미(전산) ▲장민호(전산) ▲손영주(전산 대학원) ▲김학환(전파) ▲장성전(농학) ▲서완석(농학) ▲정지원(임학·4) ▲최명규(식품·3) ▲박윤철(조경·1) ▲신정원(도예) ▲현대웅(산디·3) ▲김정원(체육·4) ▲양정년(체육) ▲정학명(체육·4) ▲장영태(태권도·4)

습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정유식(생물·91) ▲손재천(생물·92) ▲권연(법학·85) ▲김홍종(법학·93) ▲최성(신방·88) ▲하준양(경제·89) ▲이원성(경제·88) ▲유길환(무역·89) ▲한규빈(무역·91) ▲김수(무역·85) ▲김영도(무역·91) ▲김형태(영교·89) ▲김보경(영교·93) ▲변종원(미교·90) ▲유병선(가관·91) ▲이주영(식영·93) ▲김권숙(간호·90) ▲여형돈(한의예·93) ▲이명성(치의예·93) ▲호범철(성악·90) ▲제잔혜량(기악·92) ▲박광연(체육·92) ▲권혁준(체육·91) ▲이용훈(체육·91)

【수원캠퍼스】◇학생증=▲원상(불문·89) ▲정형진(경영·93) ▲안윤정(사회·9) ▲이재근(체육·86) ▲홍석민(체육·91) ◇도서대출·출입증=김현숙(영문·93) ◇지갑=▲정은아(영문·93) ▲최현옥(회계·92) ▲류두선(토목·93) ▲이헌명(호텔경영·92)

동문모임

대기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영훈 신입생 환영회=12일 4시 마로니에.

【수원캠퍼스】▲제주대기고=오는 11일 5시30분 공대식당 ▲배명고=오는 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이화·배재 신입생환영회=오는 10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영밝고=오는 10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김천고=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현대고=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영풍문고, 신세대 대학인을 위한 지성의 공간!

초대형 서점, 대형 문구점, 대형 음반점, 캠퍼터광장, 문화행사장, 휴식공간까지 ——

- 모든 책이 다 있는 서점
- 신학기 대학교재 및 외국 원서교재를 완벽하게 갖춘 서점
- 무슨 책이든 즉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점
- 국내 최대의 종합문구점, 초현대식 음반점이 함께 있는 복합서점
-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쾌적한 서점
- 편리한 교통,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시점
- 도서안내 399-5656, 399-5678
- 애 매 권 399 5616, 399-5617

지성의 향기로 가득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Tel. 399 5600